

[상식] 역사 속의 발명품

스텐서의 전자레인지

극고주파 이용한 음식 사람들에게 인기
스텐서의 전자레인지 발명 동기는 우연

1946년 이른 봄날 아침, 미국 보스턴 변화가에 위치한 '스타'라는 레스토랑 입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우리 레스토랑에서는 종래의 불이나 전열방식에 의하여 음식물을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극초고주파를 음식물에 직접 침투시켜 요리하고 있습니다>라고 쓰인 안내문 때문이었다. 이것이 전자레인지 사용의 효시이다.

전자레인지 발명가는 퍼니 스텐서. 놀랍게도 초등학교를 중퇴한 시골 출신이다. 돌이 갓 지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개가해버려 숙모 손에서 자랐다. 불행하게도 숙모마저 끼니를 잇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하여 열두살 때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스텐서의 첫 직장은 철공소. 그러나 어린 그에게는 너무 벼차 곧 레이턴사 보조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스텐서의 전자레인지 발명동기는 실로 우연중의 우연이었다. 레이턴사에 입사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기술자가 된 스텐서는 꿈에도 그리던 전자관을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었다. 바로 그날, 한참동안 정신없이 일하던 스텐서는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깜짝 놀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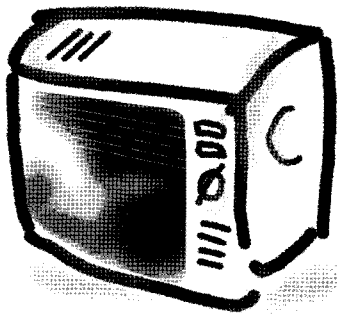
주위에 열같은 것이 전혀 없었는데도 주머니 속의 사탕이 모두 질퍽하게 녹아버렸던 것이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음날 또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간식으로 사탕 대신 옥수수와 달걀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스스로 터져버린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새로운 가능성을 확신한 스텐서는 비밀리에 연구에 들어갔다. 우선 사탕이 녹은 이유와 옥수수, 달걀이 터진 이유부터 찾아보았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자신이 만드는 전자관에서 나올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수수께끼는 의외로 손쉽게 풀릴 수 있었다.

'틀림없어! 극초고주파일거야!'

스텐서는 극초고주파를 낼 수 있는 전자용기와 여기에 음식을 담아 넣을 수 있는 쟁반을 만들어 실험해 보았다. 성공이었다. 음식물은 기적처럼 익혀졌다. 스텐서가 근무하는 레이턴사는 즉시 특허출원을 마치고 생산을 시작했다. 스텐서의 발명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이와 함께 스텐서의 승진은 당연한 결과, 스텐서는 이 우연한 발명으로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었다.



펄버튼의 코카콜라 원액

500달러로 기적을 일으킨 캔들러
운명을 바꾸려면 도전하라!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캔들러는 어느날 오후 작은 꾸러미를 내밀며 들어온 펄버튼을 만났다. 펄버튼이 내민 작은 병에는 거무스레한 물이 담겨 있었는데, 그 병의 뚜껑을 열어 보이며 캔들러에게 맛보기를 권했다.

캔들러는 그가 내민 병을 받아들고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펄버튼의 눈은 운운해 보이지만 신념에 차 있었고, 피로에 지친 표정이기는 해도 약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캔들러는 일단 병 속의 음료를 한모금 마셨다. 지금까지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독특한 맛이였다.

펄버튼은 이것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상품으로 내놓기에는 자금의 여유가 없었다. 오랜 시간동안 이 방법을 사줄만한 사람을 찾아봤지만 거절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캔들러는 5년 동안 약국을 해서 모은 돈 500달러를 선뜻 내놓았고, 그렇게 코카콜라의 제조법을 사게 된 것이다. 캔들러의 친구들은 사기꾼에게 돈을 날린 것이라며 놀려대기만 했다. 그러나 이내 코카콜라의 맛을 본 친구들은 캔들러가 조지아에 코카콜라 공장을 짓도록 도왔으며, 코카콜라는 세상에 선을 보이자마자 불티가 났다.

가게에는 코카콜라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공장은 주문이 밀려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갔다.

그 콜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고, 세계 모든 이들의 음료가 되었다.



발명 아이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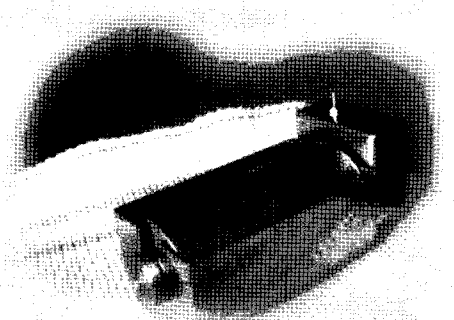
☒ **제품용도**
캔음료(맥주, 청량음료 등)를 2~4분내에 냉각시켜 마실 수 있는 장치

☒ **제품특징**

- 소량의 얼음으로 약 2~4분내에 급속 냉각 가능
- 작고 가벼우며 가정, 사무실 그리고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
- 국제특허출원 및 국내실용실안권 취득
- 저렴한 판매 가격(낮은 제조원가)
- 상품화시 미국, 유럽 등 사업독점 가능(국제특허출원)
- 특히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의 거대한 생활용품, 판촉용품 및 레저용품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

☒ **사업추진상황 및 계획**

- 국제특허출원
- 샘플 제작, 테스트 완료
- 제품디자인 중(홍익대 산업디자인과 교수에 위탁)
- 약 3~4개월 후 홍보용 및 영업용 샘플 제작 계획(플라스틱 사출 성형품)



※아이디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시오.

아이디어 제공자 : 윤인섭

문의전화 (02)6426-7079, 019-313-7079
E-mail: elleness@hananet.net

제주도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개최 안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증대와 고부가가치의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권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학생, 주부, 여성발명인, 여성기업인, 여성단체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2002. 8. 12 (월) 14:00-16:30
장소 : 제주도청 회의실
주최 : 특허청
주관 : (사)한국여성발명협회
후원 : 제주도, 여성부
내용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와 여성의 역할 (김광림 특허청장 특별강연)
생활 속 발명기법 및 적용사례 (아주중학교 김병오 교사)

※ 헬프데스크 운영(지식재산권 관련 무료 상담)
문의처 : (사)한국여성발명협회 02)2203-9460

2002 여성기업 우수상품 및 발명품 박람회 관람 안내

여성발명 활동을 촉진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특허기술의 대내적 홍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2 여성기업 우수상품 및 발명품 박람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2002. 8. 2 (금) ~ 8. 4 (일) 10:00-17:00 <3일간>
장소 : 서울 코엑스(COEX) 본관 3층 대서양관 7, 8실
주최 : 특허청, 중소기업청
주관 :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시규모 : 5,184㎡
전시품목 : 발명품, 전자 정보통신, 패션, 식품, 생활용품, 잡화 등

문의 : (사)한국여성발명협회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1-4 한홍빌딩 302호 02)2203-9460